

## 11\_1. 청담동 시절\_1 (1977~1981)

1977년(56세) 1월 19일~2월 4일 일본 교토東都에서 교회음악세미나를 가졌고, 나가노현의 마쓰모 도시松本市에 있는 재능교육연구회 본부를 방문하여 스즈끼 박사와 대화를 나누었다.

2월 7일 한국찬송가위원회 주최 <제1회 신작찬송가 발표회>가 초동교회에서 개최되었다. 한국 기독교장로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대한 예수교장로회 등이 연합하여 개편 찬송가를 편찬한 이후 한국찬송가위원회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이 하나로 된 찬송가를 만들기 위해 작업을 착수하였고,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인이 작사하고 한국인이 작곡한 찬송가를 수록하기 위해 신작찬송가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나운영은 제1회 발표회에서 3곡, 1978년 제2회 발표회에서 6곡, 1980년 제3회 발표회에서 5곡, 1981년 제4회 발표회에서 4곡, 1982년 제5회 발표회에서 5곡, 1984년 제6회 발표회에서 3곡, 1986년 제7회 발표회에서 1곡을 발표하였다.

한국찬송가위원회는 특정인의 작품이 편중되지 않게 하기 위해 작사자, 작곡자의 이름을 가린 채 작품을 심사하여 발표곡을 선정하였는데, 1987년 한국찬송가위원회 편 한국찬송가집 증보판이 나올 때까지 가사와 곡을 공모 또는 위촉하여 발표한 곡은 모두 119곡이다. 이 119곡 중 사분의 일에 해당하는 27곡이 나운영의 곡이었으므로 나운영은 이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새로 발간될 찬송가에 자신의 찬송가가 많이 채택되면, 그동안 자신이 주장해온 찬송가의 토착화와 현대화에 대한 신념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찬송가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실리게 되기를 바랐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기대는 무산되고 말았다. 나운영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후 2001년 시험판에 3곡, 2004년 시험판에 3곡이 실렸다가 그 중 1곡마저 제외되어 2006년 정식으로 출판된 『21세기 찬송가』에는 단 2곡만 실리게 되었다. 그나마 이 2곡만이라도 우여곡절 끝에 채택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다. 한국찬송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원장으로 봉사해온 그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은 아니었기에...

2월 28일 **한국 교회음악 협회를 탈퇴**하였다.

3월 1일 나운영은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여 압구정동 51-1에서 윤경유치원 착공예배를 드렸다. 나운영 부부가 강남의 노른자위인 압구정동에 터를 잡게 된 것도 축복이었다. 4년 전 이 땅을 매입할 당시 영동지역은 신사동 4거리 정도에만 건물 몇이 있었을 뿐이었다. 지금 현대백화점으로부터 갤러리아백

화점에 이르는 길은 배나무 밭이었고, 청담동에서 학동까지는 개천이 흐르고 있었다. 땅을 보러 들어갈 수도 없어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저기 저 썸입니다.” 하는 말을 듣고 구입할 정도였다. 이 땅 277평을 지인의 자문을 받아 455만원에 샀으니 정말 호랑이 담배필적 이야기이다.<sup>114)</sup>

그런데 이 때 유경손은 반포아파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개발이 진행된 신반포지역에 더 관심이 많았다. 잠수교만 만들어지면 이쪽이 더 발전할 것 같아 압구정동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개발지인 신반포에 땅 약300평을 사고 다리가 놓아지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 신반포 땅이 국가에 수용이 되어 버려 국가에서 정한 보상금만 받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서고 이어서 한양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다. 학동사거리부터 한양아파트까지 이어져 있던 개천은 복개가 되고 모든 길들이 쪽쪽 이어졌다. 이제 더 이상 이 지역은 논과 밭이 있던 지역이 아니었다. 개발의 힘찬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운영 부부는 이 압구정동에 건축을 시작한 것이다.

이날 서울성남교회 신종선 목사님, 진기숙 전도사님, 한경숙 장로님과 이영보 교수님이 착공을 위해 기도를 하여 주셨고, 나운영은 인사말에서 유경손을 이렇게 소개했다. “제 아내 유경손은 음악대학 건축과를 나왔습니다.“ 유경손이 자금계획에서부터 설계, 자재구입 등 건축에 대한 모든 일을 혼자 추진하였고, 나운영은 구경만 하였기 때문이다. 다행히 유경손은 그 전 해까지 서울YWCA 이사로서 독산동 근로여성회관 건축기성회 회장을 맡아 일하면서 건축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추진할 수 있었다.

3월 24일 은사 **모로이 사부로**(諸井三郎, 1903~1977) 선생이 별세하였다.

모로이가 누구인가? 일본유학시절 나운영에게 「너희의 음악, 너희 나라의 민족음악을 만들어 내라」는 충고를 해 주었던 은사이다. 모로이는 독학으로 작곡을 시작했다가 베를린에서 유학하면서 역사적으로 발전한 절대 음악의 수법을 배우는 한편, 일본인의 미의식을 강하게 의식하면서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구축한 작곡가이자 미학자이다. 그의 음악은 선율미보다 동기적인 주제를 처리하는 구축성

114) 유경손 자서전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68~69쪽

에 강인한 개성을 나타냈다. 나운영이 일본을 방문할 때면 꼭 찾아가 인사를 드렸던 은사인데, 세상을 떠난 것이다.

5월 23일 정식 자가용으로는 처음으로 검정색 중고 코로나(서울나 3326)를 구입하였다. 나운영은 아들 건이 운전하는 이 차를 가끔씩 이용했는데, 주로 교회를 간다거나 압구정동 현장을 구경하러 간다거나 청계천 8가에 미리 구입해 놓은 SP판이나 책을 실어 올 때였다. 그런데 이 차가 워낙 낡았기 때문에 특하면 길 한복판에서 멈춰서기 일쑤였다. 그럴 때면 하는 수 없이 나운영이 내려서 차를 밀곤 했는데, 항상 안전하게 양복을 입고 힘 쓰는 일과는 거리가 멀었던 나운영이지만, 체면이고 뭐고 상관없이 차를 밀 수밖에 없었다. 나운영의 평소 모습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나운영은 이 차를 이용하는 것을 싫다고 해본 적이 없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다.

5월 24일 찬송가 통일위원회에서 원불교 성가 작곡에 대해 공개 사과하였다. 1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사과를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나운영이 한 해 전에 선교 100주년 기념 교회음악 출판위원회 실행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일 것이다. 각 교파별로 안배하고 각 교단별로 치우치지 않게 곡이나 연주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운영은 많은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고, 원성을 사거나 적을 만들게 되었다. 특히 내 곡은 꼭 들어가야 한다고 우겨대는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일언지하에 거절하자 1966년에 저지른 과오를 가지고 공격을 받게 된 것이다. 이미 세월이 많이 흘러 다 잊힌 일인 줄 알았던 나운영으로서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선교 100주년 기념음반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었으므로 자신의 문제로 이 대전집 출판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래서 나운영은 공개사과라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5월 26일 나운영은 그동안 출판해 온 자신의 이론서들을 총서로 묶어 출판하기 위해 민중서관과 이상사와의 출판계약을 해약하고 세광음악출판사(나중에 세광출판사로 바뀜)와 새롭게 20종의 출판물을 계약하였다. 음악이론 서적이라는 것이 대중적으로 잘 팔리는 것이 아니라 겨우 강의용 교재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음악이론총서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도 없었는데, 세광음악출판사 박신준 사장이 힘껏 밀어주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민중서관에서 4권, 이상사에서 8권의 이론서와 수상집을 출판했던 것을 모두 해약하고 세광음악출판사와 새롭게 계약을 하였다.

6월 4일 강남구 압구정동 51-1에서 박은혜 전도사님의 집례로 윤경유치원 기공예배를 드렸다. 이 날은 나운영 부부의 결혼기념일이다.

6월 20일 유치원 착공부지와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공사를 지켜보기 위해 길 건너편인 **강남구 압구정동 1단지 39로 임시 이주**하였다.<sup>115)</sup>

115) 나운영 연보에는 1976.6.20로 되어 있는데, 이는 나운영의 착각이다. 주민등록표를 열람해 보면 1977년 6.20 이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월 25일 한국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 『교회음악 대전집』이 출판되었다. LP 레코드판 10장으로 구성된 이 전집은<sup>116)</sup> 예장, 합동, 기장,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루터교, 천주교, 구세군, 침례교, 성공회의 전문위원이 참여한 범교단적 기획으로 제작되었는데, 어린이찬송가 20곡, 일반찬송가 56곡, 독창곡 20곡, 대합창곡 24곡으로 구성되었다.

서울성남교회 성가대도 이 녹음에 참여하여 나운영 작곡 「시편23편」, 「골고다의 언덕길」, 「사랑이 제일일세」, 「내 마음 작은 갈릴리」, 「별빛만 빛나도」, 「손들고 읊니다」를 연주하였다. 이 대전집의 실행위원장을 맡았던 나운영의 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편집 · 구성을 마치고

그동안 개인적으로 만들어진 찬송가 음반이 몇몇 나온 일이 있으나 어린이 찬송가, 일반찬송가, 독창곡, 대합창곡이 총망라되고 또한 교회음악인이 총동원되어 『교회음악대전집』을 내게 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니 실로 한국교회음악사상 가장 획기적인 성업(聖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실행위원장의 중책을 맡은 나로서는 무엇보다도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첫째로 수많은 작품 중에서 우리 모두가 애창하는 찬송가와 누구나 은혜를 받는 독창곡과 합창곡을 선택하는 일, 둘째로 성공회와 천주교회까지 포함하여 전교단 · 전교파적으로 독창자와 교회성가대를 선정하는 일과, 셋째로 연주녹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절감했습니다. 이 『교회음악대전집』의 출판을 계기로 한국교회음악이 하루속히 토착화와 현대화되기를 바라는 동시에 교회음악을 통한 기독교부흥, 전도운동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6월 28일 한국에 있어서 5도권과 한국 지도와의 관계를 착안하였다.

9월 9일 **한국 찬송가 통일위원회 음악전문위원회**에 취임하였다.

10월 18일 아직 유치원이 다 완공되지 않았지만 주택부분만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여 **강남구 압구정동 51-1로 이주**<sup>117)</sup>하였다.

11월 11일 고故 김수억(金壽憶, ?~1969) 선생이 소장하고 있던 유성기관(SP판)을 기증 받았다. 김수억은 1957년 전쟁 직후부터 줄곧 대구에서 '하이마트'라는 고전음악감상실을 운영해오던 음악애호가였

116) 이 전집은 현재 CD로도 출판되었다.

117) 강남구 압구정동 51-1이 1982년 구획정리로 인한 지번변경이 되어 청담동 84-20으로 바뀌었음.

는데, 1969년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따님 김순희가 음악감상실을 이어받으면서 한 트럭 쌓여 있던 SP판을 기증한 것이다.<sup>118)</sup>

11월 20일 세광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출판물로는 제일 처음으로 『반주법』을 출판하였다. 이상사에서 발행한지 18년 만에 새로 수정·증보하여 출판한 것이다.



11월 26일 선화예술중고등학교강당에서 노래동산회 주최 제13회 <고마우신 선생님 상>을 받았다.

부상으로 받은 손을 벌리고 있는 듯한 모양의 이 기념패는 공예가 황영일이 기증한 것이다. 이 감사의 모임에서 「끼리 끼리 놀자」, 「소」, 「자장가」를 윤경유치원 어린이들이, 「홍부 놀부」, 「동방 박사」, 「쾌지나 칭칭」,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선화예술고교 합창단의 연주로, 「허수아비와 눈사람」을 독창으로 연주하였다.



12월 대한민국 작곡상 심사위원회에 취임하였다.

12월 15일 YMCA 7층 자원방에서 한국아동음악상 운영위원회가 주관한 <77 한국아동음악상>을 이흥렬, 박태현, 윤극영, 한용희 등과 함께 수상하였다.

118) 조선일보 '혈관을 타고 음악이 흐르는 감상실 3대' 2006. 1.21 기사

12월 28일 **운경유치원**이 드디어 **완공**되었다.



이 건물은 유치원과 주택이 ㄱ자로 붙어 있는 2층 건물로, 대지 277평에 건평 310평의 아기자기한 건물이었다. 주택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와 유치원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따로 있어 밖에서 볼 때는 별도의 건물처럼 보이지만, 이 건물 사이에 주택과 유치원을 이어주는 연결다리가 있어 건물 안에서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 연결공간이 원장실

이었는데, 이 원장실 옆 주택 2층에 나운영의 서재를 꾸미고 책과 레코드를 채워 놓았다. 난방업자에게 사기를 당하든, 건축 도중에 재정이 모자라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도망을 다니든, 나운영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나운영에게는 자기 서재가 생겼다는 것만이 중요했다. 평소 농담하던 그대로 ‘나운영’은 ‘나’만 ‘운영’하기에도 바빴던 것이다.

나운영은 원장실에서 피아노를 치며 작곡을 하였고, 자신의 서재에는 커다란 책상을 앞 뒤로 놓고, 작곡 중인 악보들을 펼쳐 놓았다. 반포아파트에 살 때는 공간 때문에 책과 레코드판을 더 이상 구입하지 못하였던 나운영은 넓은 자신의 독립된 서재를 갖게 되자 그 서재가 꼭 차도록 책과 레코드판을 사 모으기 시작하였다. 레코드판 수집에 있어서는 경쟁자이기도 했던 제자 김동환(金東煥) 교수에 의하면, 명동 뒷골목에 점찍어 둔 레코드판을 구입하려고 갔다가 그 판이 없어서 어떻게 된거냐고 물으면 “나교수님이 어제 다녀 가셨는데요.”라는 대답을 종종 들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레코드판과 책을 모으다 보니 몇 년 지나지 않아 그 서재도 발 들일 틈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책장의 한 선반에 아래 위 두 단으로 꽂는 것도 모자라 앞 뒤 두 단으로 꽂을 정도로 책을 사 모았고 레코드판은 서재 바닥에 죽 늘어 놓아야만 했다. 나운영이 자신의 수상집에서 스스로를 평한 대로 ‘책난봉’이었다.



나운영이 이렇게 책난봉이 된 것은 학자로서의 욕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나운영에게는 유학을 가지 못한 사무친 한限이 있었다. 1971년 연좌제가 폐지되기까지 외국으로 나갈 수가 없었으므로 유학은 커녕 해외 음악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가 없었다. 현대음악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가는데,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으니 나운영이 할 수 있는 일은 새로 나오는 책과 악보와 레코드판을 빨리 구입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나운영에게는 아주 절실한 일이었다. 하지만 당시는 지금처럼 인터넷은 물론이고, 해외 왕래도 많지 않을 때라 책이나 악보나 레코드판을 구입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미국이나 유럽

쪽 책을 주문하면 배로 오는 것이라 6개월이나 1년 이상 걸려야 겨우 받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나운영은 급한 대로 일본에서 번역한 책을 주문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지금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자기 것으로 바꾸는 데는 천부적인 재질이 있었다. 미국에서 나온 책이 한 달이면 벌써 번역이 되어 나오고 가격도 싸서 나운영은 주로 일본에서 책을 구입하였다. 나운영의 도서 중에 일본 책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나운영은 해외 무역상을 통해 책과 악보와 레코드판을 주문하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비상수단을 사용했다. 그것은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제자들을 활용한 것이다. 해외에서 유학을 했던 나운영의 제자라면 꼭 한 번 이상씩 나운영의 편지를 받았을 것이다.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책이나 악보 제목을 편지에 적어서 언제까지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는 편지 말이다. 이것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할 때까지 계속되었으니 말 그대로 시달렸다고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그 책이나 악보들은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심지어는 도서관에서 전체를 다 복사해서 보내온 경우도 있었다.

나운영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학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자기 스스로가 하루라도 게을리하면 배우는 학생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기에 매일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등한히 할 수 없었다. ‘착하고 부지런한 종’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그래서 평생 수많은 책과 악보와 레코드판을 모아 왔던 것인데, 자신의 서재가 생기게 된 이제, 공간도 충분하겠단다, 해외여행도 가능하겠단다, 서적무역상도 규모가 커져 일본, 미국, 유럽은 물론이고 동구권 자료도 주문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전까지는 동구권 책이나 레코드판은 가지고 들어올 수도 없었다.) 신이 날 수밖에….

나운영이 책과 레코드판을 정리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유경손도 유치원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하면서 즐겁고 보람 찬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유치원을 동화의 나라처럼 짓고 싶어 건물에 탑도 세우고, 계단도 2층에서 미끄럼을 타고 직접 내려올 수 있게 하였고, 발바닥 모양의 수영장도 만들었다.

동자동에서는 30명 정도의 소수의 원아만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제는 건물 규모도 커져 120명을 모집하였다. 인원수가 늘어나니 자연 모든 교육내용이나 행사 등이 대규모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고, 더욱 새로운 교육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당시에는 파격적이었던 개방교육(Open Education)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유아음악교육에 있어서도 새로운 교육방법과 교재를 개발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유치원은 모범유치원 표창을 2차례나 받을 수 있었고, 유경손은 대한민국 국민포장(훈장)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

**1978년(57세) 한국찬송가위원회 음악분과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3월 25일 『화성학』(세광출판사)을 출판하고,<sup>119)</sup> 5월 24일 김수억 선생 추모음악감상회를 개최하였다.

7월 14일 서울음악제 위촉작품인 「Fantasy for Solo Cello」작곡을 완성하여 11월 10일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열린 서울음악제에서 나덕성 연주로 초연하였다.

7월 21일 「선교찬송」(김정준 작사) 수정을 완성하였다. 1976. 9. 8부터 수정하기 시작하였으니까 거의 2년 동안 계속 수정을 한 것이다.

나운영은 이렇게 작품을 쓴 후 마음에 들 때까지 몇 번이라도 수정하는 버릇이 있었다. 이런 그의 습관은 연주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연주 당일 수정한 악보를 들고 와 이대로 연주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책상 서랍 구석구석에 어지러이 널려 있는 메모지들, 한 번 사용한 복사지의 뒷면을 이용해 몽당연필로 적어놓은 수정메모들...<sup>120)</sup> 나운영은 화음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떠오르면 메모 쪽지에 오선을 짝짝 긋고 음표를 그려 놓았다가 악보에 옮겨 적었다.

나운영이 소친한 후 나운영의 작품을 정리해서 출판하려고 준비하는데, 발견된 수정메모가 하도 많아 어떤 악보를 채택해야할지 몰라 나운영의 제자 나인용(羅仁容) 교수에게 어떤 악보가 맞느냐고 물었더니 교수님 말씀하시길, “다 맞습니다.”라고 하셔서 무척 당황한 적도 있었다.

나운영은 자신은 둔재鈍才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치지 않으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유독 「시편23편」만은 작곡한 다음 한 번도 수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나운영은 이 곡이 자신의 솜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구로 삼으셔서 만든 것이라고 말하곤 했던 것이다.

8월 24일 「기장 25년 기념가」(김정준 작사)를 작곡하여 9월 25일 류관순기념관에서 열린 <기장 새역사 25주년 기념 대합창제>에서 연합합창단을 지휘하여 발표하였다.

10월 25일 대한기독교교회총회 주최 재일선교 70주년기념대회 초청으로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교회음악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나운영은 「재일 선교 70주년기념가」(김덕성 작사)를 작곡하여 지휘하였다.

12월 10일 『악식론』(세광출판사)을 출판하였고, 부산 성동교회에서 개최한 <나운영 성가곡의 밤>에서 제자인 안일웅의 지휘로 합창과 독창곡을 연주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에 실린 내용이 재미있어 여기에 소개한다.

- 인간 나운영, 작곡가 나운영의 세계
- 30년 동안을 한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로서 근속한 인간. - 1978년 12월 17일은 그의 30년 근속 기념예배가서

119) 나운영 년보에는 화성학이 1979.11.25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확인 결과 1978. 3.25임.

120) 나운영작품전집 1-나운영가곡집(운경음악출판사, 1995) 70쪽



울성남교회에서 베풀어짐.

- 서양적이기보다는 동양적, 한국적인 인간상을 지닌 인간. - 그는 함박스테크보다는 곰탕과 깍두기 김치를 즐겨 먹음.
- 도시적이기보다는 전원적인 인간상을 지닌 인간. - 제주도에 한국민속박물관을 건립하고 틈틈이 작품을 구상하는 습관이 있음.
- 해학이 넘치는 언동 속에서 생을 관조하며, 사적(史的) 흐름에 대한 예리한 눈빛을 보이는 인간-. … …

12월 17일 나운영 장로 유경손 집사 성남교회 성가대 근속 30년 기념으로 유경손과 함께 표창을 받고, <나운영 성곡의 밤>이라는 타이틀로 기념음악예배를 드렸는데, 첫 순서는 「크리스마스 칸타타」로 나운영이 지휘하고 장녀 나효선이 피아노 반주를, 차녀 나효진은 마리아를, 장남 나건은 요셉을 맡아 독창을 하는 등 온 가족이 함께 출연한 의미 있는 음악예배였다.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유경손이 나운영 작곡 「시130편」과 「시23편」을 독창하였고, 세 번째 순서로 「부활절 칸타타」를 연주하였는데, 나운영과 유경손은 이 음악예배에서 다음과 같은 인사를 하였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가 성남교회에 온 지도 어언 3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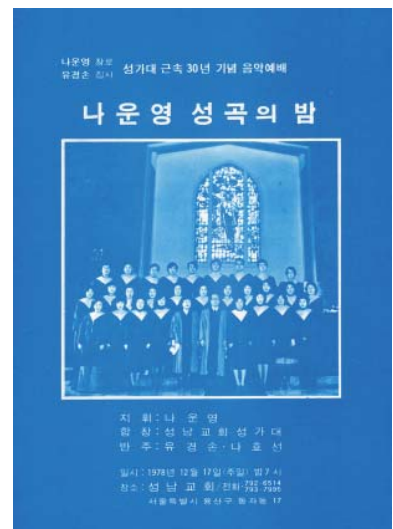
그동안 세 자녀와 함께 대과(大過) 없이 성가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믿음과 정열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와 고락을 함께 해 주신 성가대원 여러분과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주신 교우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장기집권(?)으로 말미암아 교회발전에 본의 아닌 지장을 주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면서도 성남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음악의 토착화와 현대화를 과감하게 시도함으로써 우리 음악계와 교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 미력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보람을 느낀다.

창립 33주년을 맞이하여 성남교회와 성가대의 부흥을 염원한다.

이 음악예배 프로그램에 실린 성남교회 성가대에서 배출된 음악인 명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강석희, 권영숙, 김광복, 김동환, 김병규, 김상태, 김재희, 김현덕



김화자, 나인용, 나효선, 노정숙, 박수연, 박인자, 박재열, 박준상  
 백형자, 사지형, 서경숙, 손지혜, 송해섭, 송태욱, 신재식, 심경흠  
 안일용, 오인경, 유승렬, 이만방, 이삼우, 이상철, 이성만, 이은화  
 이찬해, 이해심, 이현숙, 이해정, 장옥자, 정부기, 조병욱, 조정욱  
 조소란, 전은명, 최동선, 최인달, 최종진, 하재은, 황인자, 황희숙 (가나다순)

이날 유경손은 독창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나운영 부부는 이미 서울성남교회를 떠날 결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압구정동에서 서울역까지 다니는 거야 불편하긴 해도 견딜 수 있었지만 성가대 장기집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 동자동 언덕으로 올라올 때 기대했던 것들, 걱정했던 것들이 모두 잘 해결되었고, 축복 속에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었기에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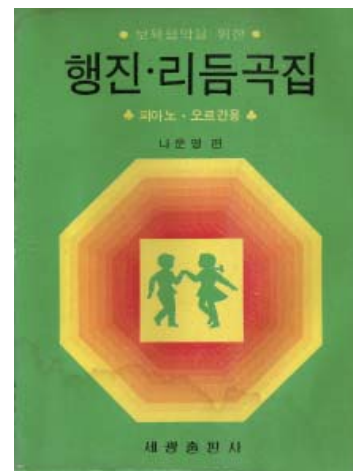
**1979년**(58세) 2월 7일 유치원 지하층에 기악실을 마련하고 **운경음악학원 인가**를 받았다. 다행히 반지하로 되어 있어 채광이 되었고, 공간은 충분히 넓었다. 그동안은 동자동 시절처럼 기악레슨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음악교육을 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동자동 시절처럼 음악활동을 특별히 받는 원아들을 한데 모아 종달새반이라고 부르고 본격적인 지도를 시작하였다. 소문은 참 빠른 것이어서 원거리에서도 원아들이 모여들었다. 같은 날 **어린이 찬송가 대전집 실행위원장에 취임**하였다.

4월 10일 보육음악을 위한 『**행진·리듬곡집**』(세광출판사)이 출판되었다. 그 머리말은 다음과 같다.

태초에 리듬이 있었다. 그러므로 음악교육은 리듬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일찍이 달크로즈(Jaques-Dalcroze)는 무용을 통해서, 오르프(Orff, Carl)는 타악기를 통해서, 코다이(Kodály, Zoltán)는 민요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리듬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것을 제창하였다.

나는 1955년에 <음악교육 개혁론 5개조> 중 제2조 ‘리듬교육은 행진 또는 체조·무용으로부터’에서 2·4박자 계통은 행진이나 체조를 통하여, 그리고 3·6박자 계통은 무용을 통해서 지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행진곡집을 보면 행진곡에 치우쳐서 3·6박자 계통이 소외된 느낌이 없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이 책에서는 행진곡



32곡·왈츠 7곡·스킵 6곡·겔럽 3곡·린 5곡·음악 리듬 31곡을 골고루 실었으며, 여기에 모두 손가락 번호를 적어 놓았다.

이 책을 통하여 어려서부터 리듬을 몸으로 익힘은 물론, 음악의 생활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5월 4일 서울특별시 주최 제57회 어린이날 기념 감사장 및 기념패를 수상하였다.

6월 21일 가면노래극 「나의 주 나의 하나님」(오소운 대본)을 작곡하여 24일 성남교회에서 성남교회 성가대가 합창을, 후암성결교회 청년회가 가면극을 맡아 초연하였다.

이 작품은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민속가면노래극으로서 김성호 목사가 기획하고 오소운 목사가 대본을 쓰고 나운영이 작곡을 하였다. 찬송가위원회 3총사가 합작을 한 것이다. 기획이 새로웠는데, 우리 고유의 탈을 쓴 연기자들은 탈춤과 함께 연기를 하고, 성가대는 합창과 독창을 하는 독특한 형태의 노래극이었다. 나운영은 다음해 이 작품을 출판하면서 가면노래극에서 칸타타로 이름을 바꾸고 가면극 부분을 성경낭독으로 대신하였다. 아마도 교회에서 탈춤과 함께 발표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다.

7월 19일~22일 마산에서 교회음악강습회를 가졌고, 27일 La's 화성법을 착안하였다.

8월 1일 나운영이 편곡·감수를 한 『한국어린이 찬송가』(침례회 출판사)가 출판되었다.

8월 24일 그동안 계속 망설여왔던 일을 실천하기로 결심한다. 그것은 그동안 차일피일 미루어 왔던, 바로 신작찬송가 월례 봉헌예배를 이제부터 꼭 드리기로 스스로 결심한 것이다.

물론 나운영이 찬송가를 봉헌한 것은 이때가 처음은 아니다. 나운영은 1958년 자신의 작곡발표회 때 이미 신작찬송가 5곡을 발표하였었고, 1975년 한국찬송가학회를 발족하여 제1회 신작찬송가 발표회에서 5곡을 발표하였었으며, 1977년부터는 찬송가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신작찬송가 공모에 꾸준히 찬송가를 제출해 왔었다. 그러나 이렇게 매월 정기적으로 찬송가를 봉헌하기로 결심하게 된 데에는 또 다른 사연이 있었던 것이다.

나운영은 이 해 8월에 제주도에 갔다가 폭풍으로 발이 묶이게 되어 여관에 묵게 되었는데, 그날 밤 잠자리에 막 들리는 참에 “매월 7곡씩 성가를 작곡해서 봉헌하라”는 음성이 들리는 듯 느껴졌다. 그 즉시 찬송가를 작곡하려고 일어났으나 준비되어 있는 가사가 없었다. 그때 나운영의 머리 속을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으니, 그것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좋은 가사들이 많지 않은가!’하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나운영은 자리를 박차고 나와 비를 맞아가며 제주 시내 종교서점을 찾아가 찬송가 한 권을 사가

지고 돌아왔다. 이렇게 해서 작곡한 신작찬송가가 바로 「외로운 배 한 척」이다.

‘감감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과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김활란 박사가 1921년에 작사한 찬송가 461장의 가사이다. 이 곡을 시작으로 신작찬송가를 매월 봉헌하고자 생각하였으나 막상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던 차에 그 결심을 굳히게 된 것이다.

같은 날 나운영이 제주도에 있을 때 그의 큰형인 **나익영**(羅益榮, 1908~1979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역임)이 **별세**하였다.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큰형이 거의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집안에 큰 일이 있건 작은 일이 있건 늘 의논상대가 되어 주었던 든든한 후원자가 세상을 떠났으니 나운영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9월 25일 『대학 음악통론』(세광출판사)을 출판하였다.

9월 30일 서울성남교회에서 개최한 <제1회 월례 신작찬송가 봉헌예배>에서 7곡을 봉헌하기 시작하여 그 후로 매월 7곡씩을 꼬박꼬박 봉헌하였다. 1979년 9월부터 1993년 9월까지 장장 14년 동안 매월 거르지 않고 7곡씩을 봉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본인이야 하나님과의 약속이니 그렇다치고 교인들과 성가대의 반응도 문제였다. 한국적인 찬송가에 익숙하지 않은 교인들은 관심이 거의 없었고, 성가대도 서양곡은 쉬운데 한국적인 곡은 어렵다고 투덜댔다. 몇 해가 지나가자 심지어는 가족들마저도 그만하면 하나님도 이해하실테니 제발 이제 그만하시라고 말렸으며, 나운영 자신도 한 달이 너무나 빠르게 돌아오는 데에 따른 중압감에 시달리게 되자 중도에 그만두려고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나운영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수 없었으며 더욱이 1966년에 저지른 자신의 과오를 이 봉헌을 통해 속죄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14년 동안 <제162회 신작성가 월례 발표회>를 통해 1,105곡에 달하는 찬송가를 봉헌하게 된 것이다. 그의 말 그대로 ‘내 손의 피가 마를 때까지’ 하나님 찬양을 거르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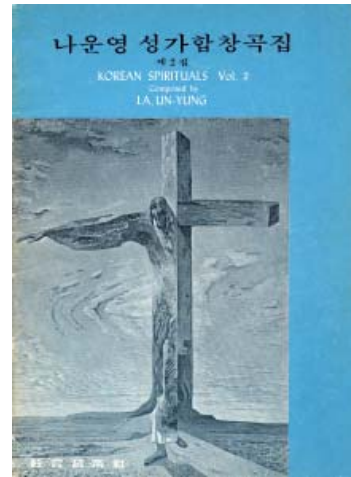
10월 23일 Pan-Pentatonic Technique을 창안하였고, 24일 Minus 5 tone technique을 창안하였다.

10월 25일 『합창편곡법』(세광출판사)을 출판하였고, 11월 4일 후암성결교회에서 제2회 나운영 작곡 신작찬송가 월례 봉헌예배를 드리고 7곡을 봉헌하였다.

12월 20일 『나운영 성가합창곡집 제2집』(교회음악사)을 출판하였다.

12월 29일 『어린이 찬송가』가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출판되었다. 이 『어린이 찬송가』는 어린이 찬송가 50년사를 총 집대성한 것으로, 초기 한국교회에서 애창된 어린이 찬송가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찬송가를 반 이상 수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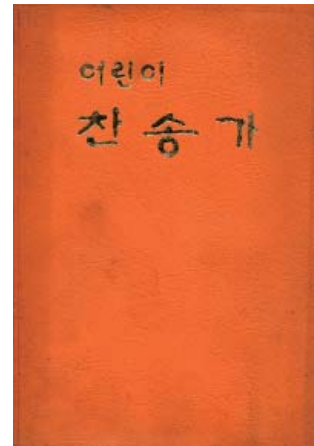
나운영은 『어린이 찬송가』 편집에 많은 공을 들였는데, 1962년 강소천과 함께 편집한 『주일학교 찬송가』(대한기독교서회), 1973년 『찬송가 어린이용』(대한기독교서회), 1979년 『한국어린이찬송가』(침례회출판사)와 이 『어린이 찬송가』(대한기독교서회)까지 총 4차례나 어린이찬송가 편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어린이 찬송가』의 머리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교회 선교 100주년을 앞둔 우리 교회가 세계 어린이 해를 맞이하여 여러 교회의 뜻을 모아서 어린이 찬송가를 하나로 묶어 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찬송가의 출판은 1936년 현제명 선생이 처음으로 아동 찬송가(101곡)를 펴낸 것을 비롯하여 1953년에는 장수철, 박재훈 선생이 어린이 찬송가(111곡)를, 1962년에는 강소천, 나운영 선생이 주일학교 찬송가(167곡)를, 1968년에는 박재훈, 이동훈, 구두희 선생이 어린이 찬송가(222곡)를 펴내었습니다. 그 후에 1973년 1월 한국 찬송가위원회에서 가입교단인 4개교파(기독교 감리회,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성결교회, 예수교 장로회)가 연합하여 250곡의 찬송가(어린이용)를 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밖에도 여러 교단과 개인이 펴낸 어린이 찬송가가 출판되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어린이 찬송가의 출판은 교회 어린이들이 찬송가를 사용하는 데 혼란을 겪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찬송가위원회에 가입된 교회와 고신측 장로교회가 어린이 찬송가를 하나로 편찬하자는 뜻을 모아 드디어 어린이 찬송가 통일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어 마침내 426곡의 본 어린이 찬송가가 출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찬송가가 나오기까지 실무책임을 지고 수고하신 김성호 목사를 비롯하여 전곡을 반주곡으로 새로 편곡해주신 나운영 박사와 편집에 수고하신 오소운 목사, 조돈환 목사와 가사 및 음악전문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후략)

한국어린이찬송가 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소영

1980년(59세) 2월 7일 전주에서 열린 교회음악강습회에서 강의하였다.

2월 26일 세계선교센터에서 열린 한국 침례회 교회진흥원음악부 주최 <제1회 전국 침례교회 음악지도자강습회>에서 연주법을 강의하였다.

3월 2일 나운영은 주택 쪽 지하 실평수 35평 정도 되는 공간을 활용하여 **운경교회를 유경손과 함께 설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성남교회 장로를 사임**하고 32년간 봉직하였던 성가대 지휘자 역시 사임하였다. 이로서 1957년부터 뿌리를 내려왔던 동자동 언덕에서 주택이 먼저 떠나고 이어서 유치원이 떠나고, 이제 교회마저 떠나게 된 것이다.

같은 날 유치원 쪽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운경선교신학교도 세웠다. 나운영은 자신의 이론을 실천적으로 교수할 방법을 찾던 중 주위에서 신학교를 설립하여 음악과와 유아교육과를 설립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당시는 대학 정원이 현격하게 부족하여 재수생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던 시절로서, 이에 편승하여 사설학원처럼 무인가 신학교가 우후죽순 생겨나던 시기였다. 주로 2년제 학교를 마치면 국가검정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이러한 신학교 모집광고가 신문광고란을 거의 차지하던 시절이었다. 나운영은 교회부설기관으로 설립하면 무인가학교가 아니라 정식으로 인가를 받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에 망설이지 않고 실행한 것이다.



이 운경선교신학교는 3월 24일 종교음악과와 유아교육과 1기생을 모집하여 입학예배를 드리고 쟁쟁한 강사를 모시고 강의를 하면서 인가 절차를 밟고 있던 중 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시작된 위수령으로 인해 계속된 휴교와 당국의 무인가 학교 정리 움직임이 있자 다음해 2월 10일 자진 폐교하였다.

한편 운경교회는 4월 6일 운경교회 어린이교회학교를 개교하였는데, 유치원 교사들이 전원 주말마다 봉사하고, 또 유치원 시설도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릴 수 있었다. 5월 6일 기장 38회 서울노회에서 설립 승인을 받고, 6월 22일 운경교회 설립예배 및 제8회 나운영 작곡 신작찬송가 봉헌예배를 드렸으며, 8월 18일~30일 운경교회 주최로 제1회 교회음악지도자 강습회를 열었고, 8월 25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는 등 운경교회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서울성남교회에서 성가대 운영만 신경 쓰면 되었던 나운영이 이제 교회 살림을 다 맡아 하게 되었다. 물론 유경손과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있었지만, 나운영 스스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벽기도부터 저녁예배에 이르기까지, 본격적인 장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나운영 작곡 신작찬송가 봉헌예배도 더욱 열의를 가지고 계속 드렸다.

하지만 나운영 부부의 열심과는 별개로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유치원에 속해 있는 듯한 교회 구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운경교회는 7년 후 경기고등학교 앞(논현동 102-19) 상가를 임대해 이전을 하였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개척교회를 다시 일군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 재정적 어려움과 신도들간의 갈등을 겪다가 결국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교회이전과 함께 교회명칭을 호산나교회로 바꾸었다. 운경교회라는 명칭이 나운영과 유경손의 가운데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은혜롭지 못하다는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운영 부부는 처음부터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었지만 기꺼이 이를 받아들였다. 호산나교회는 이 자리에서 계속되다가 1990년 나운영 부부가 청담동 건물을 매각하면서 받은 대금 중 일부를 현금해 송파구 오금동 140-6에 교회건물을 구입하여 이전하였으며, 현재는 초음교회와 합하여 하나님께 바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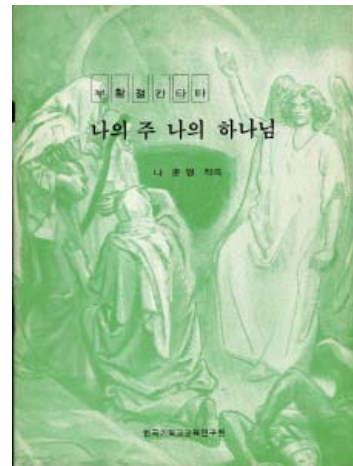
운경교회(호산나교회)는 이동준 목사, 정황래 목사, 이상범 목사, 박귀현 목사, 김경수 목사, 이혜신 목사, 윤성범 목사가 목회를 하였는데, 특히 김경수 목사와 나운영과의 관계는 오랜 지우(知友)이자 시인과 작곡가의 만남이었기에 각별하다.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면서 틈틈이 시집을 발표해 온 김경수 목사와는 이전부터 서신을 왕래하며 서로 호흡이 잘 맞던 사이였다. 나운영 작곡 신작찬송가 중에서 김경수 목사 작시로 된 찬송이 164곡에 이를 정도로 둘은 콤피였다. 나운영은 김경수 목사가 제주도에서 은



[김경수 목사와 함께]

퇴를 하자 호산나교회로 모시고 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은은한 정을 나누었다.

3월 15일 『작곡법』(세광출판사)을 출판하였고,<sup>121)</sup> 1979년에 작곡한 오소운 대본 부활절칸타타 『나의 주 나의 하나님』(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을 출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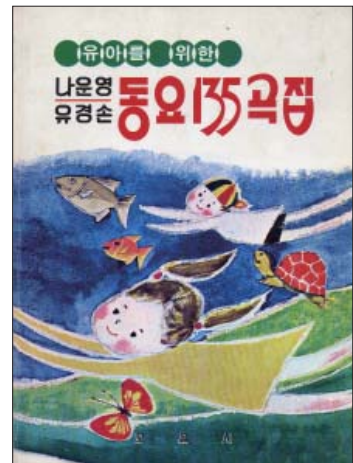
3월 23일 제5회 나운영 작곡 신작찬송가 월례 봉헌예배를 성광교회에서 드렸다. 나운영은 이 제5회와 제2회, 2번만 자신이 지휘하는 성가대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신작찬송가 월례 봉헌예배를 드렸다.

4월 25일 『유아를 위한 나운영·유경손 동요135곡집』(보육사)을 출판하였는데, 그 머리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부부가 어린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해방되던 해부터였습니다.

그해 6월 4일에 결혼하고 해방을 맞았습니다.

조국이 해방되었는데도 골목에서 들려오는 어린이들의 노래소리는 한결같이 일본말 노래였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우리 부부는 동네 어린이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파랑새 노래회를 만들어 JODK(지금의 KBS)에서 건국 후 최초로 동요 방송도 했습니다.



그 후 각 보육대학에서 교편을 잡으며 또 유치원을 창설하여 어린이들과 생활하며 35년 동안 작사·작곡한 동요 중에서 유아를 위한 동요 135곡을 골라 이 책에 실었습니다. (중략) 부디 이 노래가 이 나라 방방곡곡의 어린이들에게 불리어져 보다 밝고 아름다운 인격 형성의 밑거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후략)

나운영 부부는 해방 직후 중앙여자전문학교(현 중앙대학교) 및 조양보육사범학교(현 경기대학) 교수로 함께 재직하면서 유치원 강습회 등을 통해 새로운 동요를 많이 보급하였다. 유아의 정서를 기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예술적인 동요들도 이때 많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나운영 부부 합작품의 특징은 다른 데 있다. 그것은 나운영 부부의 동요는 그냥 동요작가가 쓴 작품이 아니라 유아의 실생활 속에서 나온 생활동요라는 것이다.

1959년 주택 거실에 유치원을 설립했던 나운영 부부는 유치원 속에서 유아들과 함께 살았다. 동자동에서도 그랬고, 청담동에 가서도 그랬다. 유경손은 유치원 원장으로서 유아들과 함께 생활하며, 유아

121) 나운영 년보에는 1981. 2.15로 되어 있으나 초판 발행일을 확인한 결과 1980. 3.15일임.



의 눈으로 본 세상을 그렸고, 유아의 입에서 나온 어휘들로 작사를 하였다. 동요는 유치원에서의 모든 활동이었고, 교사와 유아, 유아와 유아 사이의 대화였다. 등원하고, 정리하고, 모이고, 이야기 나누기를 하고, 주제별 활동을 하고, 손을 씻고, 기도하고, 밥을 먹고, 놀이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헤어지고 하는 등 모든 활동에 꼭 들어맞는 동요를 만든 것이다.

이런 천진난만한 유경손의 가사에 나운영은 다양한 숨결을 불어넣었다. 귀엽고 발랄한 동요, 신나고 재미있는 동요뿐만 아니라 서정적인 동요도 작곡하였고, 우리 민족의 얼이 느껴지는 동요도 작곡하였다. 더욱이 나운영은 곡마다 악보에 화음기호를 적어 놓아 이 동요곡집이 반주법을 익히기 위한 교재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것은 유치원 교사가 유아의 음악성 육성을 위해 올바른 화음으로 반주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나운영의 동요는 이 화음기호에 맞추어 반주하지 않으면 아주 다른 곡이 되어 버린다. 가끔 나운영의 동요를 1도, 4도, 5도 화음만으로 반주하는 교사들을 볼 수 있는데, 갓 쓰고 양복 입은 꼴이다.

나운영은 이 100여곡의 유아를 위한 동요뿐만 아니라 유아를 위한 오페라 「솔로몬 임금님」(유경손 대본)과 「토끼와 늑대」(유경손 대본)를 작곡하였고, 어린이들을 위한 동요도 100여곡을 작곡하였다. 같은 날 **한국찬송가 위원회 서기에 취임**하였다.

5월 12일 La's Stenographic Notation(나씨식 속기법)을 완성하였다.

7월 6일 일본 경도京都 회관 제1홀에서 열린 한국경도청년회의소 주최 〈한국음악의 밤(鳳仙花の歌)〉에서 오사카大阪 필하모니 교향악단과 김병곤(金炳坤) 지휘로 「교향곡 제3번」을 일본 초연하였다.

8월 30일 **목원대학을 사임**하였다.

11월 4일 예술가곡 「추야몽」(한용운 시)을 작곡하였고, 5일 『관현악법』(세광출판사)을 출판하였다.

12월 21일 그동안 발표해 온 신작찬송가 중에서 52곡을 선곡하여 나운영 작곡 『한국찬송가 제1집』(운경교회)을 출판하였는데 그 머리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찬송은 노래를 통한 기도요 신앙고백입니다. 1893년에 서양찬송가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행된 이래 오늘날의 합동·새·개편찬송가에 이르는 동안 우리는 참으로 수많은 찬송가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는 가사는 매우 좋은데 곡조가 우리의 생리에 잘 맞지 않아 별로 불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찬송가의 원가사에 토착화 또는 현대화된 곡조를 새로 작곡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매월 7곡씩을 봉헌·발표해오고 있습니다.



이 한국찬송가가 우리 민족의 영원인 찬송가 통일작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새로운 찬송가가 삼천리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1981년**(60세) 2월 9일 한국찬송가 위원회 주최 찬송가 가사의 문제점과 개발을 위한 세미나에서 「음악의 측면에서 본 찬송가의 가사」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3월 2일 **세종대학 교수 겸 음악학과장에 취임**하였다.

3월 27일~28일 포항 북부교회 주최로 교회음악세미나를 가졌다.

4월 9일 『어린이 찬송가음반 대전집』이 출판되었고, 25일 **한국찬송가 위원회 음악분과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5월 2일 아들 건鏞이 결혼하였다.

5월 12일 **한국찬송가공회 음악분과 위원에 취임**하였고, 19일 홍난파 작곡 『조선가요작곡집』 영인본을 만들어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7월 13일~23일 일본 동경 제일 대한기독교 동경교회에서 교회음악강습회를 가졌고, 8월 5일 『대위법』(세광출판사)을 출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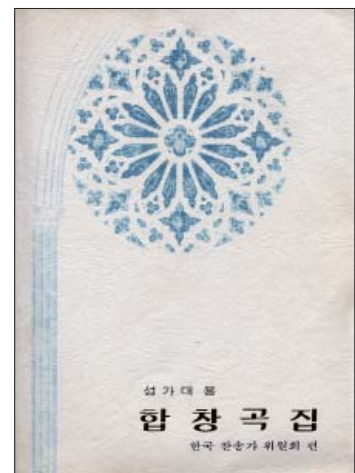
8월 18일~30일 운경교회 주최로 교회음악강습회를 개최하였는데, 유경손, 신귀복, 이경혜 선생과 조돈환 목사와 함께 강의하였다.

10월 20일 나운영이 편집한 『성가대용 합창곡집』(한국 찬송가 위원회)이 출판되었는데, 그 머리말은 다음과 같다.

교회에서의 성가대의 존재는 마땅히 재인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배를 주도하는 것이 성가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가대가 그 책임을 다할 때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다.

성가대용 합창곡집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것은 1937년에 출판된 교회음악연구회 발행의 『특선 200곡집』(조활용 편)이다. 이 책은 300면의 미려한 등사본이다.

8·15 해방 직후에는 기독교 청년 면려회 경기 노회 연합회 음악부 발행의 『교



회음악』(박태준 편)이 활판 인쇄본으로 1948년까지 제5집이 출판되었고, 1951년에는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 한국 교회음악협회 출판부 발행의 『교회음악』이 등사본으로 출판되었는데, 이것은 1958년까지 제13~16집이 활판 인쇄본으로 속간 되었으며 1953년에는 대한기독교서회 발행의 『성가』(박태준 편)가 활판 인쇄본으로 1956년까지 4집이 출판되었다. 그 뒤를 이어 교회음악사(박재훈, 전희준) 악원사(이남철) 미과사(이재문) 에덴문화사(김창현) 기독교음악사(안광호) 등이 본격적인 악보 출판을 계속하여 오늘에 이르던 중 드디어 한국찬송가위원회 발행의 『성가대용 합창곡집』이 최고급 옵세트 인쇄본으로 나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수많은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여 교회력에 맞추어 선곡했고 Phrasing Accent 등을 고려하여 가사를 번역했으며 또한 오늘날까지 잘못된 악보로 전해져 내려 왔던 곡을 철저히 수정하여 전체를 새로 정사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교회음악도 이제 한 단계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후략)

11월 5일 『관현악법』(세광출판사)을 출판하였다.



11월 29일 **운경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았다. 이 임직식은 이상범 목사 담임목사 취임식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이로서 운경교회는 명실상부한 조직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나운영은 이제야말로 실질적인 장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할 책임을 느끼게 되었다.

12월 18일 그동안 발표해 온 신작찬송가 중에서 59곡을 선곡하여 나운영 작곡 『한국찬송가 제2집』(운경교회)을 출판하였다.

